



황희찬, 울버햄튼 데뷔전 골 8번째 EPL 한국인 득점

황희찬이 울버햄튼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황희찬(25·울버햄튼·사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렸다.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울버햄튼과의 EPL 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8분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추가골을 넣었다. 황희찬은 이로써 박지성, 설기현, 이청용, 지동원, 기성용, 김보경, 손흥민에 이어 EPL 무대에서 골을 기록한 8번째 한국인 선수로 기록됐다.

울버햄튼과 EPL 4라운드 경기 승리 결정짓는 추가골 넣어
울버햄튼, 리그 시작후 3연패 황희찬 활약으로 첫 승 올려

리그 시작 후 3연패의 늪에 빠졌던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활약으로 첫 승을 올렸다. 임대 이적 형식으로 EPL에 진출한 황희찬은 이날 후반 18분 교체 투입되며 영국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K리그1 포항 스틸러스 유스 출신인 황희찬은 2014년 12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계약하며 유럽에 진출했다. 잘츠부르크 위성 구단인 리퍼링에서

경험을 쌓은 황희찬은 2015~2016시즌 잘츠부르크 1군에서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갔고, 2018~2019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함부르크로 임대됐다. 이후 잘츠부르크로 복귀한 황희찬은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했다가 지난해 임대 형식으로 EPL 울버햄튼으로 이적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류현진, 또 다시 최악투로 고개 숙이다

볼티모어전 2¼이닝 2피홈런 7실점 평균자책점, 올 시즌 첫 4점대 진입 팀 극적인 역전승으로 패전은 면해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또 다시 최악투로 고개를 숙였다. 평균자책점은 올 시즌 처음으로 4점대에 진입했다. 팀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패전을 면한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 앳 캠퍼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로 나서 2¼이닝 8피안타 1볼넷 4탈삼진 7실점으로 무너졌다. 홈런 2개를 맞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1회 2사 2루에서 앤서니 산탄데르에게

좌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2회 2사 3루에서 오스틴 헤이스에게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얻어맞았다. 경기를 돌아보며 “나쁘진 않았다”고 평한 류현진은 “실투 한 개가 첫 번째 이닝에서 홈런으로 연결됐다. 두 번째 맞은 건 그쪽으로 던지려고 한 걸 상대 선수가 잘 쳤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말했다. 3회에도 실점이 이어졌다. 류현진이 1사 만루에 몰리자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이 마운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곧바로 투수 교체를 하지 않고 류현진

에게 만루를 맡겼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라이언 맥케나에 2타점 적시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야 했다. 류현진은 “(감독님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이뤄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곱씹었다. 8월 이후 벌써 세 번째 7실점 경기를 하면서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4.11까지 올랐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이 4점대로 치솟은 건 처음이다. 류현진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류현진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내줬지만 ‘진격의’ 토론토 타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7-10으로 끌려가던 7회 4점을 쓸어담아 11-10 역전승을 거뒀다. 조지 스프링어는 9-10에서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려



MLB프레스박스 캡처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로 나서 2¼이닝 8피안타 1볼넷 4탈삼진 7실점을 기록했다.

영웅이 됐다. 류현진도 스프링어에 대해 “너무 멋진 홈런이었다. 몸만 안 아프면 최고의 야수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타자고, 거기에 맞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극적인 승리로 자신의 부진을 지워준 팀 동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마왕 신해철 부활

KT, 인공지능 기술로 음성 복원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3편 제공

KT는 대중 음악인인 인기 라디오 DJ였던 신해철의 음성을 KT의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자체 개발한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P-TTS)을 활용해 신해철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진행했던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라디오방송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목소리를 복원했다. P-TTS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해 짧은 시간의 음성데이터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해낼 수 있다. KT의 AI는 단순하게 문장을 발음하는 수준을 넘어 발화 패턴과 억양까지 학습해 신해철씨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구현했다. KT는 AI로 복원된 신해철씨의 목소리로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을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3편의 라디오 방송 형태로 10월 7일까지 한달여 동안 KT의 기기자니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기기자니에게 '신해철 목소리 들려줘'라고 요청하면 된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은 신해철씨의 팬들과 기기자니를 이용하지 않는 KT 고객을 위해 17일부터 KT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다. KT는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에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인디밴드 어려움을 주제로 대중음악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신해철의 모습을 담은 등 대중이 기억하는 신해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KT는 이번 콘텐츠 제작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KT IMC담당인 성은미 상무는 “KT의 AI 기술이 고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중문화에도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전참시' 김희진, 남다른 먹성 자랑

매니저와의 일상 공개



배구선수 김희진(사진)이 먹성을 자랑했다. 1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는 도교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의 주인공 김희진이 출연해 매니저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MC 전현무는 옷 안에 김희진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다. 김희진은 “매니저가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매니저를 위해 원픽으로 전참시를 찍었다”고 말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희진은 “개인 매니저는 아니고 팀 매니저다. 항상 일처리가 정확하고 푹푹하다”고 매니저를 소개했다.

이날 화보 촬영을 앞둔 김희진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라고 매니저에게 묻는다. 하지만 이내 “몰라. 난 노출할 거 아니니까”라며 쿡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또 김희진은 전날 먹은 야식 메뉴들을 언급하며 “맛있는 걸 먹어야, 먹고 잘 때가 제일 행복해”라며 음식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www.peopliflife.co.kr

같이 함께 성장할 최고의 '피플라이프' 가족을 초빙합니다

보험 컨설턴트 채용

- 모집분야: ① 개인사업자-개인영업채널, 법인영업채널 ② 근로소득자(정규직) - OTC, EFA
- 모집채널: ① FA(Financial Advisor) / 지점장 / 사업단장 / 본부장 ② 정규직 상담매니저(OTC, EFA)
- 특별지원
 - FA: 초기 정착지원금, 직전년도 소득의 20%~50% (약월 일시 지급)
 - 매니저: 계층별 초기 정착수수료 최저 지원 (1년간)
 - OTC, EFA 상담매니저(정규직): 기본급(250만원) + 인센티브 + 시책
 - EFA 사업단장(정규직): 기본급(500만원) + 인센티브
 - EFA DB지원: 매월 활동 DB 20~40개 무상 지원
- 승진기회: OTC_ 상담매니저 → 지점장 → 지역장 → 본부장(임원)
EFA_ 상담매니저 → 수석 → 사업단장 → 본부장(임원)
- 근무지역: 전국대도시 및 광역권별

※ OTC: 국내최초 내방형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 EFA: 국내최초 초이가는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피플라이프 검색 02-2251-6817

피플라이프는 18년 역력의 4대 경쟁력을 보유한 (분업화, 컨설팅화, 네트워크, 교육시스템) 명실상부 최고의 GA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험클리닉, CEO클리닉 등의 브랜드를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개인 및 기업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추천 및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